

# 하림조의 악조에 관한 연구

정 해 임\*

- |                   |                           |
|-------------------|---------------------------|
| I. 서론             | IV. 『악학궤범』                |
| II. 『삼국사기』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청풍체          |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 2. 현금의 하림조와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 |
| III. 『세종실록』       | 3. 향비파의 하림조와 청풍체          |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 V. 『성호사설』                 |
| 2. 현금의 최자, 탁목, 우식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
|                   | VI. 결론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초의 가야금악조인 하림조악조에 관해 고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하림조는 우륵과 이문이 신라 진흥왕앞에서 낭성의 하림궁에서 연주한 가야금악조로서 우리나라음악사에서 최초로 악조명을 사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림궁에서 연주한 하림조는 지금의 충북 청주시 낭성면지역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된다.

『세종실록』에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에 대한 보법과 탄법이 남아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지 않았다. 현금의 최자, 탁목, 우식, 다수회, 청평, 거사연은 속악의 명칭으로 사

---

\*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 3603hi@naver.com

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하림조와 눈죽조의 두 악조가 우리나라 악조의 시초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풍체와 탁목조 등도 하림조라고 하여 우륵이 남긴 풍류음악이라고 하였다.

『악학궤범』에 이르러 하림조는 가야금과 현금, 향비파 등 향악기의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라는 악조의 명칭으로 확대되어 악기의 산형에 줄이나 껀의 명칭, 율명과 상하지법,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과 우조의 우, 궁, 상, 각, 치 그리고 시용 궁, 상, 각, 치, 우 등의 5음음계, 그리고 기보법과 탄법을 포함한 조현법을 갖춘 다양한 악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악학궤범』가 야금과 향비파, 현금의 하림조는 청풍체에 해당되고,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금의 하림조는 최자조나 우식조로 나타나는데 청태주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림조는 『삼국사기』, 『세종실록』, 『성호사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악조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악학궤범』에 이르러 가야금 뿐만 아니라 현금, 향비파 등의 악조에도 영향을 주어 청풍체, 최자조와 우식조 등의 다양한 악조로 확대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림조는 조현법에서 청풍체와 낙시조평조1지, 최자조와 우조계면조 막조를 비교하면 고음역이나 저음역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들면서 변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림조는 가야금, 현금, 향비파의 조현법에서 향악의 평조와 계면조의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 주제어

하림조, 청풍체, 우식조, 최자조, 우륵

## I. 서론

한국음악은 다양한 악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악조는 음악을 형성하는 기본 틀이다. 이러한 악조의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삼국사기』에 가야금에 대한 기록에서 하림조와 눈죽조의 악조명을 언급하고 있다. 그밖에 『세종실록』과 『성호사설』에도 『삼국사기』의 하림조와 눈죽조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보법이나 탄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악학궤범』에 하림조가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의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 등의 악조에 언급되어 있고, 악기의 산형과 조현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림조와 관련한 선행연구논문은 「향악 하림조의 음악사학적 고찰」<sup>1)</sup>, 「악학궤범의 청풍체에 관한 고찰」<sup>2)</sup>, 「거문고 향악조 청풍체의 잉에 관한 연구」<sup>3)</sup> 등으로 많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음악의 악조인 하림조에 관하여 그 악조용어가 처음 등장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삼국사기』, 『세종실록』, 『악학궤범』, 『성호사설』의 고악서와 고문헌들을 통해 비교하여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악학궤범』의 가야금, 현금, 향비파의 향악기 조현법을 중심으로 하림조와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낙시조평조 1지, 우조계면조 막조 등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서 하림조악조의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

1) 송방송, 「향악 하림조의 음악사학적 고찰」, 『한국음악사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9, 379~415쪽.

2) 남상숙, 「악학궤범의 청풍체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291~312쪽.

3) 양승경, 「거문고 향악조 청풍체의 잉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55집, 한국음악사학회, 2015, 117~141쪽.

## II. 『삼국사기』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우리나라 악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림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고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은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기 다르니 음악이 어찌 한결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 악사 성열현 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하였다... 가야금에는 두 악조가 있으니, 첫째는 하림조, 둘째는 눈죽조로서, 모두 185곡이었다. 우륵이 지은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이,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혜, 이사, 상기물이었다. 이문이 지은 3곡은, 오, 서, 순이었다.<sup>4)</sup>

위와 같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하림조와 눈죽조는 우륵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악조명으로서 모두 185곡이었다. 가야국의 가실왕은 가야금을 만들었고, 성열현 출신의 악사인 우륵에게 가야금 12곡을 짓게 하였다. 우륵이 지은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기,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혜, 이사, 상기물 등이고, 이문이 지은 3곡은 오, 서, 순 등이다. 그러나 하림조와 눈죽조의 악조에 대한 보법이나 탄법,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하림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4) 『三國史記』 卷32 雜志 第一 樂 新羅樂 加耶琴,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 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 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 造十二曲.... 加耶琴有二調 一河臨調 二嫩竹調 共一百八十五曲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하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泥文所製三曲 一曰烏 二曰鼠 三曰鶻”

신라 진흥왕 12년(551) 봄 정월에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다. 3월에 왕이 순행하다가 낭성에 이르러, 우륵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특별히 불렀다. 왕이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의 가실 왕이 12현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 이에 우륵에게 명하여 곡을 만들게 하였던 바,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의하였다. 그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다.<sup>5)</sup>

위와 같이 신라 진흥왕 12년에 우륵과 이문이 신라 진흥왕 앞에서 낭성<sup>6)</sup>의 하림궁에서 연주한 곡은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와 가야금곡으로 충북 낭성지역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하림조로 사료된다. 하림궁의 하림은 하림조의 하림과 명칭이 같다.

### III. 『세종실록』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세종실록』에 의하면 예조에서 의례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가야금의 악조인 하림조와 눈죽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야금의 눈죽조와 하림조는 이름만 남아 있고 곡은 전하지 않으니, 이러한 잃어버린 여러 편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보법이 아직 남아 있고, 그

---

5) 『三國史記』 제4권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二年, “十二年 春正月 改元開國 三月 王巡守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 特喚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歌奏之 先是 加耶國嘉悉王 製十二弦琴 以象十二月之律 乃命于勒製其曲 及其國亂 操樂器投我其樂名加耶琴”

6) 낭성은 충청북도 청주의 옛 이름으로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으로 추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5권, 淸州牧 건치연혁조에 의하면 이곳은 본래 백제의 上黨縣이었는데, 娘城 또는 娘子谷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가사의 구본을 전사하여 개인적으로 간직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국내외로 영을 내려 우리나라의 옛날 노래와 악전을 널리 구하여, 만약 상세하고 완전한 구본을 자진하여 고하고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관직으로 상을 준다면, 예전 음악이 없어지고 빠진 것을 거의 찾아 채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sup>7)</sup>

『세종실록』에 의하면 조선조 세종 12년에 악성 박연은 『삼국사기』에 가야금 최초의 악조인 하림조와 눈죽조의 가야금음악과 노래를 담은 가사의 舊本을 구해 올바로 전수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 『삼국사기』에 전하는 하림조와 눈죽조의 악보는 음악을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그 보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2. 현금의 최자, 탁목, 우식

『세종실록』에 의하면 예조에서 의례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현금에서는 그 탄법은 알면서도 가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최자, 탁목, 우식, 다수희, 청평, 거사연 등이다.<sup>8)</sup>

위와 같이 현금의 최자, 탁목, 우식, 다수희, 청평, 거사연 등은 현금에 반

---

7) 『世宗實錄』 제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伽倻琴所屬 嫩竹調、河臨調、空有其名、而不傳其聲、此等遺亡諸篇、不可悉記、然譜法尙存、其歌詞舊本、意必有傳寫私藏者焉。願令中外悉求我朝舊時歌典、如有詳悉舊本、自告進呈者、賞之以職、則舊樂之缺、庶可填補矣”

<http://sillok.history.go.kr>

8) 『世宗實錄』 제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今以玄琴所屬言之、有知彈法、而不知歌詞者、如崔子、啄木、憂息、多手喜、清平、居士戀等類是也”

<http://sillok.history.go.kr>

주에 맞추어 가사를 노래한 곡일 것이다. 그러나 탄법과 가사를 제시하지 않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최자·탁목·우식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악인데 지금 관습도감에서 모두 이를 시험해 선발하지 않고 있어 장차 폐지되어 없어질 지경에 이르고 있사오니 아울러 연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9)</sup>

이와 같이 최자, 탁목, 우식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古樂으로 전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연습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보법과 탄법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속악을 정하여 환환곡·미미곡·유황곡·유천곡·정동방곡·현천수·절화·만엽치요도·최자·소포구락·보허자·파자·청평악·오운개서조·중선화·백학자·반하무·수룡음·무애·동동·정읍·진작·이상곡·봉황음·만전춘등 곡조로써 평상시에 쓰는 속악을 삼았는데, 악보 1권이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최자는 속악에 사용하고 있고 악보도 한 권 있다고 하였으나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

9) 『世宗實錄』 제73권, 세종 18년 윤6월 24일 무자 1번째기사, “議政府據禮曹呈啓 唯子啄木 憂息 乃是本國古樂, 今慣習都監不并試取, 將至廢絶, 并令肄習何如 從之” .  
<http://sillok.history.go.kr>

10) 『世宗實錄』 116권, 세종 29년 6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又定俗樂, 以桓桓曲、麴臺曲、維皇曲、維天曲、靖東方曲、獻天壽、折花、萬葉熾瑤圖, 唯子〔唯子〕、小拋毬樂、步虛子 破子、清平樂、五雲開瑞朝、衆仙會、白鶴子、班賀舞、水龍吟、無尋、動動、井邑、眞勺、履霜曲、鳳凰吟、滿殿春等曲, 爲時用俗樂, 有譜一卷”  
<http://sillok.history.go.kr>

#### IV. 『악학궤범』

『악학궤범』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악조가 전해지고 있다.

악조에는 궁조, 상조, 각조, 치조, 우조 등 5개의 조가 있고, 낙시조와 우조, 평조와 계면조, 하림조와 최자조 그리고 탁목조 등이 있다. 5조 중 치조는 속칭 평조이고, 5조 중 우조는 속칭 계면조이다.<sup>11)</sup>

『악학궤범』에 의하면 궁조, 상조, 각조, 치조, 우조의 5조, 낙시조와 우조, 평조와 계면조, 하림조와 최자조 그리고 탁목조 등의 다양한 악조가 있다. 5조 중 치조는 치←(3율정)→우←(4율정)→궁←(3율정)→상←(3율정)→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조에 해당하며, 우조는 우←(4율정)→궁←(3율정)→상←(3율정)→각←(4율정)→치로 구성되어 있고, 계면조에 해당된다. 낙시조와 우조는 속악의 7조에 해당되는데 『악학궤범』에 속악의 7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금 아악은 역시 12율의 宮을 사용한다. 그러나 속악은 단지 7조만 사용한다. 협종과 고선 두 음이 궁인 것은 1지이다. 중려와 유빈의 두음이 궁인 것은 2지이다. 임종이 궁인 것은 3지이다. 이척과 남려가 궁인 것은 4지인데 속칭 횡지이다. 무역과 응종 두음이 궁인 것은 5지인데 속칭 우조라고 한다. 청황종이 宮인 것은 6지인데 속칭 팔조라고 한다. 청대려와 청태주의 2음이 궁인 것은 7지인데 속칭 막조이다. 아악은 소리가 낮아서 황종이 초성이고, 속악은 소리가 높아서 협종이 초성이다.<sup>12)</sup>

11) 『樂學軌範』 제1권 24b, “樂調有宮商角徵羽五調 又有樂時調羽調平調界面河臨唯子啄木等調 五調之內徵調卽俗所用平調也 五調之內羽調卽俗所用界面調也”

12) 『樂學軌範』 제1권 24ab, “今 雅樂 亦並用十二律之宮 而俗樂卽則只用七調 併夾鍾姑洗兩聲爲宮卽一指也 併仲呂蕤賓兩聲爲宮卽二指也 林鍾一聲爲宮卽三指也 併夷則南呂兩聲爲宮卽四指也而俗稱橫指 併無射應鍾兩聲爲宮卽五指也而俗稱羽調 清黃鍾一聲爲六指卽八調 併清大呂清太簇兩聲爲宮卽七指也而俗稱邈調 雅樂聲低以黃鍾爲初聲, 俗樂聲高以夾鍾爲初聲”



위와 같이 아악에서는 12울을 각각 궁으로 하는 황중궁, 대려궁, 태주궁, 협중궁, 고선궁, 중려중, 유빈궁, 임중궁, 이척궁, 남려궁, 무역궁, 응중궁을 사용하는데 비해 속악에서는 12울을 7지로 나누어 1지의 협중궁/고선궁, 2지의 중려중/유빈궁, 3지의 임중궁, 4지의 이척궁/남려궁, 5지의 무역궁/응중궁, 6지의 청황중궁, 7지의 청대려궁/청태주궁을 사용한다. 속악의 초성은 협중으로 아악의 초성인 황중보다 4울이 높다. 이하 가야금과 현금, 향비파 등 속악기 조현법에 적용된다.

이 중에서 하림조는 가야금, 현금, 향비파 등 향악기의 조현법에서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 등에 나타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청풍체

『악학궤범』의 가야금악조에는 낙시조와 우조가 있고, 평조와 계면조, 청풍체가 있다. 평조는 5조 중 치조이고, 계면조는 5조 중 우조이다. 낙시조에는 1지의 고선궁, 2지의 중려중, 3지의 임중궁, 4지의 남려궁이 있고, 우조에는 4지의 남려궁, 5지의 응중궁, 6지의 황중궁, 7지의 태주궁이 있다. 어느 음을 기본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궁의 위치가 달라진다.

### 1) 가야금의 청풍체

가야금의 하림조는 청풍체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청풍체는 하림조 속칭 잉이라고 하고 고선궁이다.<sup>13)</sup>

『악학궤범』에서는 하림조는 청풍체라는 새로운 악조명을 병용하고 있다. 청풍체는 청풍지역의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청풍은 지금의

13) 『樂學軌範』 제7권.18b.22b,26b, “淸風體亦名河臨調惑稱剩卽姑洗宮也”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해당된다. 그래서 청풍의 충북 제천시 청풍면과 하림의 충북 낭성면의 지역적인 음악적 특징이 같기 때문에 청풍체와 하림조가 같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잉은 가야금, 현금, 향비파 등 향악기의 청풍체 조현법의 설명에서 하림조, 고선궁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잉에 대하여 학자들은 각자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해구는 “청풍체를 일명 잉이라고 하는데 그 잉이 우리말의 한자 표시인지, 불명하다.”<sup>14)</sup>고 하였다. 남상숙은 “낙시조 1지와는 다른, 기존의 7지와의 1지이므로 나머지 1지 또는 여분의 1지라는 뜻으로 잉이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15)</sup>고 하였다. 양승경은 “잉이 박(剝)의 오기라는 전제하에 잉은 탁목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6)</sup>고 하였다. 이에 잉은 청풍체, 하림조와 1지의 고선궁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잉의 의미를 찾아보던 중 『방산한씨금보』의 양금 현명에서 잉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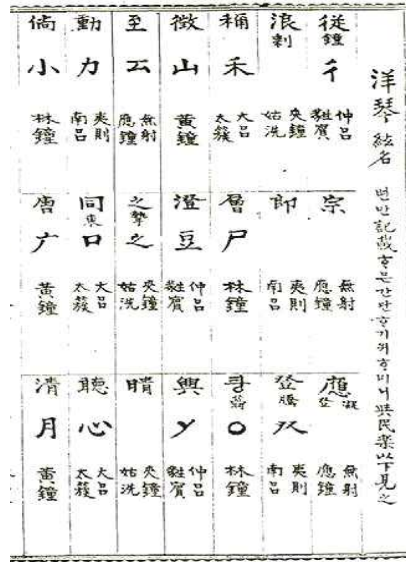
잉은 <그림1>『방산한씨금보』<sup>17)</sup> 양금의 현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4) 이해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450쪽.

15) 남상숙, 앞의 논문, 302쪽.

16) 양승경, 앞의 논문, 137쪽.

17) 『방산한씨금보』는 1916년 한우석이 등사해서 만든 현금, 가야금, 양금의 악보이다. 조현법과 현명 등과 步虛詞, 與民樂, 歌曲, 靈山會像, 界面加樂除只, 文蟹兩清還入, 羽調加樂除只, 吹打, 時節歌 등의 악곡이 전한다.



〈그림1〉『방산한씨금보』 양금의 현명<sup>18)</sup>

〈표1〉『방산한씨금보』 양금 조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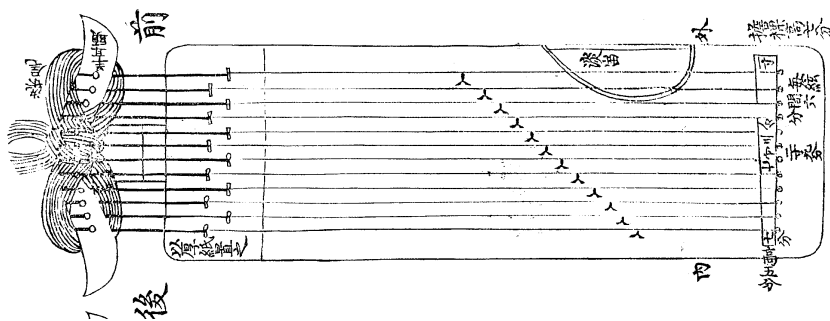
	7현	1	2	3	4	5	6	7	비고
오른쪽 괘 왼쪽줄	구음	淸	廳	晴	興	강/蔞	登/騰	應/登/凝	
	약자	月	心		y	O	ㄸ		
	울명	黃鐘	大呂 太簇	夾鐘 姑洗	仲呂 蕤賓	林鐘	夷則 南呂	無射 應鐘	
	울명	橫鐘	伏呂 伏簇	俠鐘 姑洗	仲呂 傑賓	侏鐘	俠則 備呂	無射 應鐘	〈필자수정〉 <sup>19)</sup>
왼쪽괘 오른쪽 줄	구음	唐	同/ 來	之/ 擊	澄	層	卽	宗	
	약자	广	口	之	豆	尸			

18) 「芳山韓氏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14권, 은하출판사, 1989, 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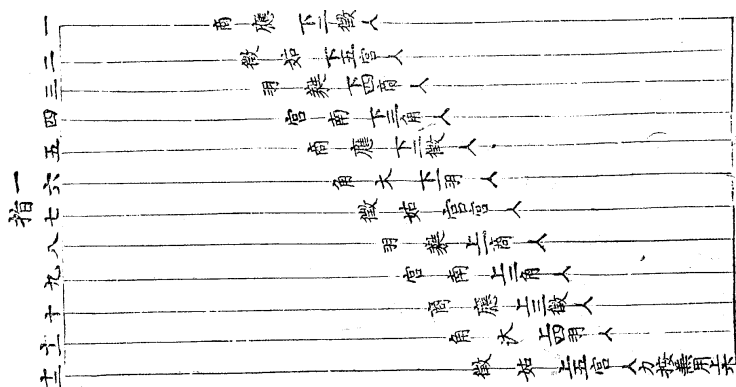
	율명	黃鐘	大呂 太簇	夾鐘 姑洗	仲呂 蕤賓	林鐘	夷則 南呂	無射 應鐘	
왼쪽과 왼쪽줄	구음	尙	動	至	徵	稱	浪/剩	從/鐘	
	약자	小	力	厶	山	禾		彳	
	율명	林鐘	夷則 南呂	無射 應鐘	黃鐘	大呂 太簇	夾鐘 姑洗	仲呂 蕤賓	
	율명				橫鐘	汰呂 汰簇	汰鐘 汰洗	泅呂 泅賓	<필자수정>

<그림1> 『방산한씨금보』 양금의 현명에 의하면 현명과 율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율명에 탁성이나 청성표기가 없어 <표1>에 필자가 수정해 놓았다. 즉 오른쪽 개의 왼쪽 제1현부터 제7현까지는 탁성으로 표기해야 하고, 왼쪽 개의 왼쪽 제4현부터 제7현까지는 청성으로 표기해야한다. 특히 잉은 청성의 汰鐘과 汰洗을 지칭하는 현명으로 『악학궤범』의 향비파, 거문고, 가야금 조현법의 청풍체1지 고선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가야금 청풍체의 조현법은 <그림2>와 같다.



19) 필자가 수정한 부분을 나타낸다.



〈그림2〉 『악학궤범』 가야금과 청풍채 1지 산형<sup>20)</sup>

『악학궤범』 가야금의 청풍채 조현법에는 1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1지는 『악학궤범』 속악의 7조의 설명에 처음 나오는 용어로 협종이나 고선을 기본 음으로 하는 협종궁이나 고선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의 청풍채 조현법에 대하여 『악학궤범』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현법에서 제2현은 하5이고, 제7현은 궁, 제12현은 상5이고, 모두 고선이 다. 제3현은 하4이고, 제8현은 상1이고, 모두 유빈이다. 제4현은 하3이고, 제9현은 상2이고, 모두 남려이다. 제1현과 제5현은 하2이고, 제10현은 상3이고, 모두 응중이다. 제6현은 하1이고, 제11현은 상4이고, 모두 대려이다.<sup>21)</sup>

위와 같이 가야금의 청풍채 조현법에서는 12현을 상하지법과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과 시용 궁, 상, 각, 치, 우와 그리고 율명을 배합하여 표기하고 있다. 즉 가야금 청풍채1지의 구성음은 姑<제2현:하5/제7현:궁/제12현:상

20) 『樂學軌範』 제7권 24a, 27a.

21) 『樂學軌範』 제7권 26b, “調絃法 第二絃爲下五 第七絃爲宮 第十二絃爲上五 並姑洗 第三絃爲下四 第八絃爲上一 並蕤賓 第四絃爲下三 第九絃爲上二 並南呂 第一絃第五絃爲下二 第十絃爲上三 並應鍾 第六絃爲下一 第十一絃爲上四 並大呂”

5/시용 궁/치조의 치>, 蕤<제3현:하4/제8현:상1/시용 상/치조의 우>, 南<제4현:하3/제9현:상2/시용 각/치조의 궁>, 應<제1현, 제5현:하2/제10현:상3/시용 치/치조의 상>, 大<제6현:하1/제11현:상4/시용 우/치조의 각> 등으로姑와蕤의 율정은 3율이고, 蕤와 南의 율정은 4율이고, 南과 應의 율정은 3율이고, 應과 汰의 율정은 3율 등으로姑蕤南應汰 5음음계의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의 청풍제1지 조현법에서 궁(姑)←(3율정)→상(蕤)←(4율정)→각(南)←(3율정)→치(應)←(3율정)→우(汰) 등 시용 궁, 상, 각, 치, 우의 평조 5음음계의 율정은 치←(3율정)→우←(4율정)→궁←(3율정)→상←(3율정)→각 등 치조 치, 우, 궁, 상, 각 5음음계의 율정과 일치한다. 그런데 청성과 탁성의 구분이 잘 표기되어 있지 않다. 율명은 제1현부터 제12현까지 應(제1현), 姑(제2현), 蕤(제3현), 南(제4현), 應(제5현), 大(제6현), 姑(제7현), 蕤(제8현), 南(제9현), 應(제10현), 汰(제11현), 姑(제12현)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德(제1현), 𪛗(제2현), 𪛘(제3현), 𪛙(제4현), 應(제5현), 𪛚(제12현)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하지법에서 제1현은 제5현은 옥타브의 구분없이 똑같은 하2로 표기하고 있는데 제1현은 제5현보다 한 옥타브 낮은 탁하2의 德으로 표기해야 한다. 음역은 德에서 𪛚까지 거의 세 옥타브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속악의 궁, 상, 각, 치, 우의 5음과 상하지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악의 궁은 궁, 상, 각, 변치, 치, 우, 변궁의 7음을 사용하지만, 속악의 궁은 2변을 사용하지 않고, 5음만을 사용한다. 청성과 탁성의 사이의 중성은 궁이고, 궁에서 청성으로 상, 각, 치, 우로 점점 높아지고, 궁에서 탁성으로 내려가면 우, 치, 각, 상으로 점점 아래로 낮아진다. 탁성과 청성의 분별이 번거로운 까닭에 상하지법이 있다. 즉 궁에서 청성으로 올라가면 상1, 상2, 상3, 상4, 상5, 상6이라고 하고, 궁에서 탁성으로 내려가면 하1, 하2, 하3, 하4, 하5라고 한다. 모두 5음과 배합한다. 중성의 궁은 하5, 상5와 함께 모두 宮이다. 상5는 청궁이고, 하5는濁宮이다. 하4, 상1, 상6은 모두 商이다. 하3과 상2는 角이다. 하2와 상3은 徵이다. 하1과 상4는 羽이다.<sup>22)</sup>

이와 같이 아악의 궁은 궁, 상, 각, 변치, 치, 우, 변궁의 7음을 사용하지만, 속악은 궁, 상, 각, 치, 우의 5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하지법과 시용 궁, 상, 각, 치, 우의 5음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하지법은 속악에서 청성과 탁성의 구분을 정확하게 위하여 만든 방법으로 하5(탁궁), 하4(상), 하3(각), 하2(치), 하1(우), 궁, 상1(상), 상2(각), 상3(치), 상4(우), 상5(청궁), 상6(청상) 등으로 시용 궁, 상, 각, 치, 우의 5음음계에 배합되어 있다. 속악 시용 궁, 상, 각, 치, 우의 5음음계는 중국의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의 5음음계와 우조의 우, 궁, 상, 각, 치의 5음음계를 각각 한국식의 평조와 계면조에 배합하여 사용한다.

『악학궤범』 가야금의 청풍체1지의 조현법을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악학궤범』 가야금의 청풍체 1지 조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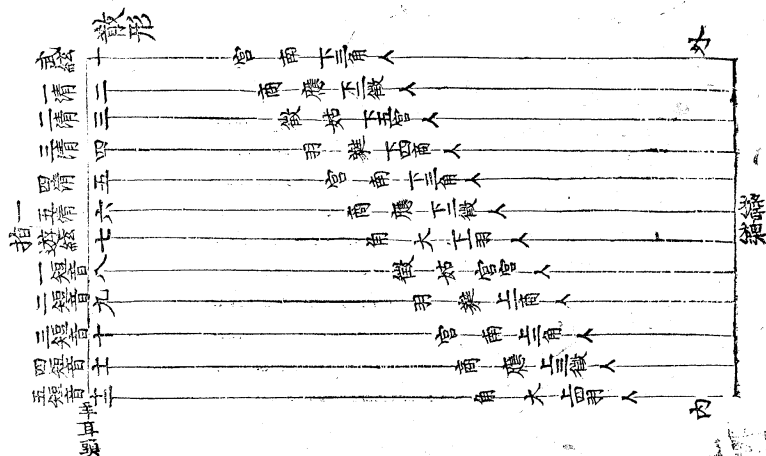
12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상하	下二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시용	徵	宮	商	角	徵	羽	宮	商	角	徵	羽	宮	
치조	商	徵	羽	宮	商	角	徵	羽	宮	商	角	徵	
음명	應	姑	蕤	南	應	大	姑	蕤	南	應	汰	姑	
음명	德	𪛗	𪛘	備	德							𪛚	<필자 수정>

가야금의 청풍체 1지는 고선궁평조이고, 낙시조 평조 1지도 고선궁평조로 되어 있어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 낙시조 평조 1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2) 『樂學軌範』 제1권 25a, “雅樂之宮用七音宮商角變徵徵羽變宮 俗樂之均不用宮商角徵羽 只用五音 而以清濁之間 中聲爲宮 自宮向清則商角徵羽漸次而高 自宮向濁則羽徵角商漸次而下 濁聲清聲分辨浩繁 故又 有上下之法 自宮向清曰上一上二上三上四上五上六 漸次而高 自宮向濁曰下一下二下三下四 下五 並與五音相配 中聲之宮與下五上五並宮이다 上五清宮 下五濁宮也 下四上一上六並商也 下三上二角也 下二上三徵也 下一上四羽也”

## 2) 가야금의 낙시조 평조 1지

『악학궤범』 가야금 낙시조 평조 1지의 조현법을 나타내는 산형은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악학궤범』 가야금의 낙시조 평조 1지 산형<sup>23)</sup>

『악학궤범』에 전하는 가야금 12현명은 다음과 같다. 제1현은 무현, 제2현은 1청, 제3현은 2청, 제4현은 3청, 제5현은 4청, 제6현은 5청, 제7현은 유현, 제8현은 1단음, 제9현은 2단음, 제10현은 3단음, 제11현은 4단음, 제12현은 5단음 등이다. 청은 낮은 음역을 나타내고, 1청, 2청, 3청, 4청, 5청으로 올라갈수록 차차 음이 높아진다. 그리고 단음은 줄의 길이가 짧으면 줄이 긴 것보다 높은 음을 낸다는 의미로 높은 음역을 나타내고, 속칭 ‘덜임’<sup>24)</sup>이라고 하는데 1단음, 2단음, 3단음, 4단음, 5단음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음이 높아진다.

23) 『樂學軌範』 제7권. 24b.

24) 『樂學軌範』 제7권. 24b, “短音俗稱덜임”



『악학궤범』에 가야금의 낙시조평조 1지의 조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낙시조 평조 1지는 고선궁이다. 조현법은 제3현이 하5가 되고, 제8현이 궁이 되는데 모두 고선이다. 제4현이 하4, 제9현이 상1로서 모두 유빈이다. 제5현이 하3, 제10현이 상2로서 모두 남려이다. 제6현이 하2, 제11현이 상3으로 모두 응중이다. 제7현이 하1, 제12현이 상4로 모두 대려이다. 제1현이 남려이고 탁하3이다. 제2현이 응중으로 탁하2이고 역안하면 하1이다. 다른 조의 율의 상하일이법도 모두 이와 같다.<sup>25)</sup>

위와 같이 가야금 낙시조 평조 1지의 조현법에 의하면 구성음은 姑<제3현:하5/제8현:궁/시용 궁/ 치조의 치>, 蕤<제4현:하4/제9현:상1/시용 상/ 치조의 우>, 南<제1현:탁하3/시용 각, 치조의 궁>, 應<제2현:탁하2/제6현:하2/제11현:상3/시용 치, 치조의 상>, 大<제7현:하1/제12현:상4/시용 우, 치조의 각> 등으로 姑와 蕤의 율정은 3율이고, 蕤와 南의 율정은 4율이고, 南과 應의 율정은 3율이고, 應과 汰의 율정은 3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야금 낙시조 평조 1지는 姑蕤南應汰 5음음계의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역은 徧에서 汰까지 두 옥타브 반이다.

가야금의 낙시조평조 1지의 조현법을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악학궤범』 가야금의 낙시조평조 1지의 조현법

12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현명	武絃	1淸	2淸	3淸	4淸	5淸	遊絃	1短音	2短音	3短音	4短音	5短音	
상하	濁下三	濁下二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시용	角	徵	宮	商	角	徵	羽	宮	商	角	徵	羽	

25) 『樂學軌範』 제7권, 24b, “樂時調平調 一指姑洗宮也 調絃法 第三絃爲下五 第八絃爲宮 並姑洗 第四絃爲下四 第九絃爲上一 並蕤賓 第五絃爲下三 第十絃爲上二 並南呂 第六絃爲下二 第十一絃爲上三 並應鍾 第七絃爲下一 第十二絃爲上四 並大呂 第一絃亦南呂濁下三也 第二絃亦應鍾濁下二也 力按則爲下一 他調之律上下一二之法并同”

치조	宮	商	徵	羽	宮	商	角	徵	羽	宮	商	角	
음명	南	應	姑	蕤	南	應	大	姑	蕤	南	應	大	
음명	徧	德	姑	蕤	徧	德						汰	<필자 수정>

이상으로 가야금 청풍채 1지와 낙시조 평조 1지를 비교하여 보면 고선궁 평조인 점에서 같으나 조현법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가야금 청풍채 1지는 낙시조 평조 1지보다 전체적으로 한음씩 높게 조현되어 있다. 즉姑는 청풍채에서는 제2현(하5), 제7현(궁), 제12현(상5)이나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제3현(하5)과 제8현(궁)이 되고,蕤는 청풍채에서는 제3현(하4)과 제8현(상1)이나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제4현(하4)과 제9현(상1)이 되고,南은 청풍채에서는 제4현(하3), 제9현(상2)이나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제5현(하3)과 제10현(상2)이 되고,應은 청풍채에서는 제1현과 제5현(하2)과 제10현(상3)이나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제2현(탁하2)이 되고,大는 청풍채에서는 제6현(하1)과 제11현(상4)이나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제7현(하1)과 제12현(상4)이 된다. 그리고 청풍채의 제12현은 상5(泚)으로 역안하여 상6(瀝)까지 높여 낸다. 고선궁의 기본음인姑는 청풍채의 조현법에서는 제7현에 조율하는데 비해 낙시조평조 1지의 조현법에서는 제8현으로 조율하여 청풍채는 낙시조 평조 1지보다 한 줄씩 높게 올려 조율한다. 이와 같이 청풍채는 낙시조 평조 1지의徧~汰의 음역에서 최저음인徧을 없애고 최고음泚를 추가하였고, 음역은德~泚의 음역으로 두 옥타브 반이다.

## 2. 현금의 하림조와 청풍채, 최자조, 우식조

『악학궤범』의 현금 악조에는 궁조, 상조, 각조, 치조, 우조 등 5개의 조가 있고, 낙시조와 우조, 평조와 계면조, 청풍채, 하림조와 최자조, 우식조 그리고 탁목조 등이 있다. 치조는 치, 우, 궁, 상, 각의 5음음계로 속칭 평조이고, 우조는 우, 궁, 상, 각, 치의 5음음계로 속칭 계면조이다. 낙시조에는 1지의

협종궁/고선궁, 2지의 중려궁/유빈궁, 3지의 임종궁, 횡지의 이척궁/남려궁이 있고, 우조에는 횡지의 이척궁/남려궁, 우조의 무역궁/응종궁, 팔조의 창황종궁, 막조의 청대려/청태주궁이 있다. 횡지는 4지이고, 우조는 5지이고, 팔조는 6지이고 막조는 7지이다. 어느 음을 기본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궁의 위치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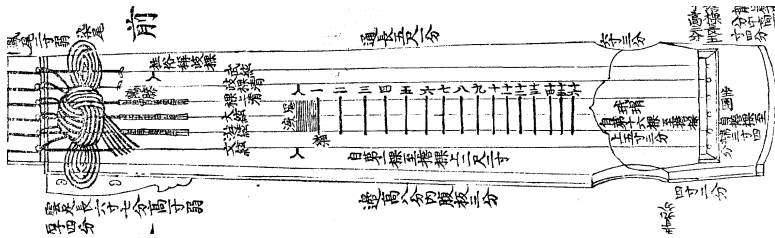
현금의 하림조는 청풍체와 최자조에 언급하고 있는데 현금의 하림조와 청풍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 1) 현금의 청풍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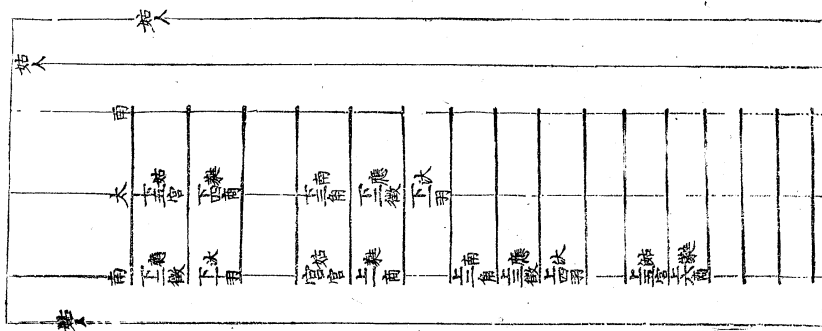
“청풍체는 하림조 속칭 잉이라고 하고 고선궁이다.”<sup>26)</sup>

현금의 청풍체는 하림조, 잉이라고도 하고, 고선을 기본음으로 하는 고선궁이다. 현금의 청풍체는 가야금의 청풍체 설명과 같다.

현금의 청풍체 조현법은 다음 <그림4>와 같다.



26) 『樂學軌範』제7권.18b, “清風體亦名河臨調惑稱剩卽姑洗宮也”



〈그림4〉 『악학궤범』 현금과 청풍채 산형<sup>27)</sup>

“현금의 제1현은 문현, 제2현은 유현, 제3현은 대현, 제4현은 패상청, 제5현은 기패청, 제6현은 무현이다. 현금 청풍체의 조현법은 무현, 기패청, 문현의 음은 고선이고, 대현은 태주이고, 패상청과 유현의 음은 남려이다. 모두 개방현의 음이다.”<sup>28)</sup>

위와 같이 현금의 6현은 각각 고유한 현명이 있다. 제1현은 문현, 제2현은 유현, 제3현은 대현, 제4현은 쾌상청, 제5현은 기쾌과청, 제6현은 무현이다. 청풍체는 무현, 기쾌청, 문현의 개방현은 기본음인 고선으로 조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의 청풍체 조현법 산형에 의하면 고선궁평조로서 궁(유현5괘)과 하5(대현 2괘)는 姑이고, 상5(유현12괘)는 姤이고, 모두 시용 궁조의 궁이고 치조의 치이다. 상1(유현6괘)과 하4(대현 3괘)는 姤이고, 상6(유현13괘)는 姤이고, 모두 시용 상이고 치조의 우다. 상2(유현8괘)과 하3(대현 5괘)은 南이고, 모두 시용 각이고, 치조의 궁이다. 상3(유현9괘)과 하2(대현 6괘, 유현2괘)는 應이고, 모두 시용 치이고, 치조의 상이다. 상4(유현10괘)과 하1(대현

27) 『樂學軌範』 제7권. 13b, 19a.

28) 『樂學軌範』제7권. 18b, “調絃法 武絃岐樛清文絃爲姑洗 大絃爲太簇 樛上清遊絃爲南呂 並散聲也”

7패, 유현3패)은 汰이고, 모두 시용 우이고, 치조의 각이다.

위 현금 청풍체의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악학궤범』 현금의 청풍체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 비교

	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대 현	상하		下 五	下 四		下 三	下 二	下 一							
	시용		宮	商		角	徵	羽							
	울명	太	姑	蕤		南	應	汰							
		伏	飮	儼		備	應	大							<필자 수정>
유 현	상하		下 二	下 一		宮	上 一		上 二	上 三	上 四		上 五	上 六	
	시용		徵	羽		宮	商		角	徵	羽		宮	商	
	울명	南	應	汰		姑	蕤		南	應	汰		飮	蕤	
	울명	備	應	大											<필자 수정>

<표4> 현금의 청풍체 조현법에서 시용 평조의 궁, 상, 각, 치, 우와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의 5음음계와 상하지법, 姑蕤南應汰 5음음계의 고선궁 평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음인 姑를 유현5패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탁성과 청성과의 구분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姑와 蕤, 南과 應, 應과 汰는 3울정으로, 한 패의 차이가 나고, 蕤와 南은 4울정으로 두 패의 차이가 난다. 또한 하5에서 상6까지 두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현금의 청풍체는 고선궁평조로 이루어져 있고, 낙시조 평조의 1지도 고선궁평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현법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현금의 낙시조 평조 1지

『악학궤범』에 의하면 현금의 낙시조 평조의 1지의 조현법이 <그림5>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5> 『악학궤범』 현금의 낙시조 평조 1지 산형

낙시조에서 평조는 5조 중 치조이다. 1지는 협종궁과 고선궁이다. 조현법은 무현, 양청, 유현은 고선이고, 대현은 이척과 남려이고, 문현은 무역과 응중이다. 각 현은 모두 개방현의 음이다.<sup>29)</sup>

이와 같이 평조는 5조 중 치조에 해당된다. 치조는 치, 우, 궁, 상, 각의 5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현금 낙시조 평조1지는 협종궁과 고세궁이다. 현금의 낙시조 평조의 1지의 조현법 산형에 의하면 궁(대현5괘, 유현1괘)는 夾/姑이고, 상5(유현8괘)는 浹/浹이고, 모두 시용 평조의 궁이고 치조의 치이다. 상1(대현6괘, 유현2괘)는 仲/麤이고, 상6(유현9괘)는 沚/濊이고, 모두 시용 상이고 치조의 우이다. 상2(대현8괘, 유현4괘), 하3(대현 1괘)은

29) 『樂學軌範』제7권. 14a, “平調五調內平調一指夾鍾姑洗宮也 調絃法 武絃兩清遊絃爲姑洗 大絃爲夷則南呂 文絃無射應鍾 各絃並散聲也”

夷/南이고, 상2(유현11괘)는 洩/滯이고, 모두 시용 각이고 치조의 궁이다. 상3(유현5괘), 하2(대현 6괘, 유현2괘)는 無/應이고, 상3(유현12괘)은 漙/漙이고, 모두 시용 치이고 치조의 상이다. 상4(유현6괘, 유현13괘)는 潢이고, 하1(대현3괘)은 黃이고, 모두 시용 우이고 치조의 각이다. 그리고 12울의 속명은 대현3괘에서 대현12괘까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黃은 合, 大와 太는 四, 夾과 姑는 一, 仲은 上, 𪛗는 勾, 林은 尺, 夷와 南은 工, 無와 應은 凡, 潢은 六, 汰는 五, 汰는 高五, 洩은 添五 등 공척보로 기보되어 있다. 개방현의 조현법은 무현, 양청, 유현은 고선에 조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왼손 식지, 장지, 모지의 탄법도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위 조현법 산형에 의하면 낙시조평조 1지에서 기본음이 夾과 姑로 협중궁평조는 夾仲夷無潢로 구성되어 있고, 고선궁평조는 姑𪛗南應潢으로 구성되어야 있다. 그러나 고선궁평조의 5번째 음인 潢은 4번째 음의 應보다 2울 높은 汰으로 수정해야 한다. 낙시조 평조 1지의 산형에 의하면 협중궁평조는 될 수 있으나 고선궁평조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낙시조 평조 1지의 구성음이 정확하지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괘의 울명표기방법은 악학계법의 夾/姑, 仲/𪛗, 林, 夷/南, 無/應, 潢, 汰/汰 등 7지의 음을 괘의 울명에 차례대로 차용하여 기보한 것으로 불합리하다.

위 현금의 낙시조 평조 1지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을 <표5>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악학계법』 현금의 낙시조평조 1지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 비교

	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비고
대현	상하	下三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상하			下一														<필자수정>
	시용	角	徵	羽		宮	商		角									
	치조	宮	商	角	變徵	徵	羽	變宮	宮									
	울명	夷南	無應	黃	大太	夾姑	仲𪛗	林	夷南	無應	潢	汰汰	洩姑	仲𪛗	林	夷南	無應	
	울명	俠南	無應										洩姑	漙𪛗	淋	洩滯	無應	<필자수정>
	공척보			合	四	一	上/勾	尺	工	凡	六	五/高五	添五					
유현	상하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上六		上二	上三	上四				
	상하						上四							上四				<필자수정>
	시용	宮	商		角	徵	羽		宮	商		角	徵	羽				

	치조	徵	羽	變宮	宮	商	角	變徵	徵	羽	變宮	宮	商	角				
음명	夾姑	仲	林	夷南	無應	潢	汰	汰	洩	淋	洩	潢	洩	洩	洩	洩	洩	洩
음명																		<필자수정>

위 <표5>와 같이 현금의 낙시조 평조 1지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은 시용 평조와 치조와 상하지법, 음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꽤마다 각각 하나의 음이 아니라 한 음 또는 두 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夾/姑, 仲/癸, 夷/南, 無/應, 潢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중궁/고선궁평조이다. 치조에는 치, 우, 변궁, 궁, 상, 각, 변치의 7음이 표기되어 있으나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에만 상하지법이나 시용 평조에서는 궁, 상, 각, 치, 우의 5음과 배합하여 기보되어 있다. 그리고 夷/俯에서 洩/癸까지 두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夾/姑를 유현8괘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탁성과 청성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상으로 현금의 청풍체와 낙시조 평조 1지의 조현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풍체 1지와 낙시조 평조의 1지의 공통점은 1지를 궁으로 한다는 점이다. 청풍체는 고선궁평조로 姑癸南應汰의 5음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음인 姑를 유현5괘에 맞추어 조율하는데 비해 낙시조 평조 1지는 협중궁/고선궁 평조로 夾/姑, 仲/癸, 夷/南, 無/應, 潢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음인 夾/姑를 유현8괘에 맞추어 조율한다. 음역은 청풍체에서는 낙시조평조 1지이다 癸와 癸의 저음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현금 청풍체와 낙시조 평조의 1지 개방현의 조현을 비교하면 <표6>과 같다.

<표6> 『악학궤범』 현금의 청풍체와 낙시조평조의 1지 개방현의 조현법 비교

악조	문현	유현	대현	기괘청	괘하청	무현
청풍체	姑	南	太	南	姑	姑
낙시조평조1지	夷/南	夾/姑	夷/南	夾/姑	夾/姑	夾/姑

<표6>과 같이 개방현의 조현에서 괘하청과 무현에서 청풍체는 姑, 낙시조



1지는 夾/姑로 유사하나 문현, 유현, 대현에서는 다르게 조율한다.

### 3) 현금의 최자조

현금의 하림조와 최자조, 우식조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금 최자조는 태주궁계면조이다 조현법은 문현, 무현은 태주이고, 양청, 유현은 임중이고, 대현은 황종이다. 속칭 하림조이고 우식조와 같다.<sup>30)</sup>

『악학궤범』 현금의 최자조는 속칭 하림조이고, 우식조와 같고 태주궁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현의 조현에서 문현과 무현은 태주궁계면조의 기본음인 태주이고, 양청과 유현은 임중이고, 대현은 황종이다. 양청은 기괘청과 괘하청을 가리킨다.

『삼국사기』에 우식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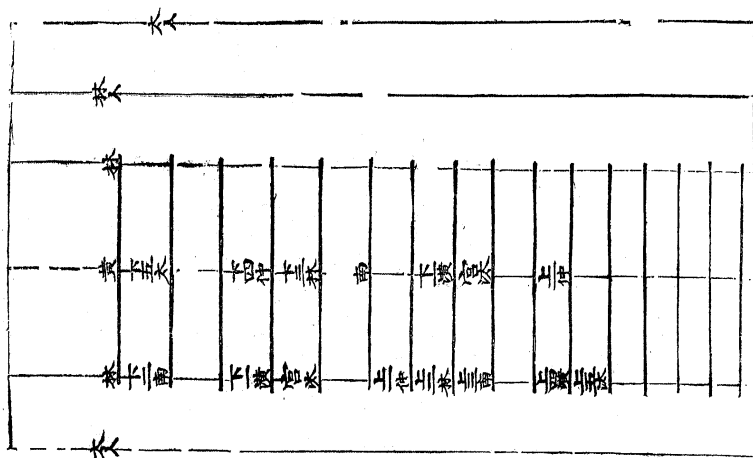
처음 미사흔이 올 때 육부에 명하여 멀리 나가 맞이하게 하였고, 만나게 되자 손을 잡고 서로 울었다. 형제들이 모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마음껏 즐겼으며 임금은 스스로 노래와 무용을 만들어 그 뜻을 나타냈는데 지금 향악의 우식곡이 그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이 우식곡은 슬픈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향악곡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 현금 최자조의 조현법 산형은 <그림6>과 같다.

30) 『樂學軌範』 제7권.16a., “唯子調 太簇界面調也 調絃法 文絃武絃爲太簇 兩清遊絃爲林鍾 大絃爲黃鍾 卽俗稱河臨調也 憂息調同”

31) 『三國史記』 제45권, 11b, 열전 5 박제상, “初末斯欣之來也 命六部遠迎之 及見握手相泣 會兄弟置酒極娛 王自作歌舞 以宣其意 今鄉樂憂息曲是也”



〈그림6〉『악학궤범』현금 최자조 산형32)

〈그림6〉『악학궤범』현금 최자조 조현법 산형에 의하면 개방현과 대현과 유현의 상하지법과 율명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궁(유현5괘, 대현9괘)과 상5(유현12괘)는 汰이고, 하5(대현 2괘)는 太인데 유현12괘의 汰는 중청성의 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1(유현7괘), 하4(대현 4괘, 대현11괘)는 仲인데 유현7괘와 대현11괘의 仲은 청성의 湫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2(유현8괘), 하3(대현 5괘)은 林인데 유현8괘의 林은 청성의 淋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3(유현9괘), 하2(유현2괘), (대현 6괘)는 南인데 이 대현6괘의 南은 하2가 빠져 있고, 유현9괘의 南은 청성의 湍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4(유현11괘), 하1(대현8괘, 유현4괘)은 潢인데 유현11괘의 潢은 중청성의 潢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같이 탁성과 청성과의 구분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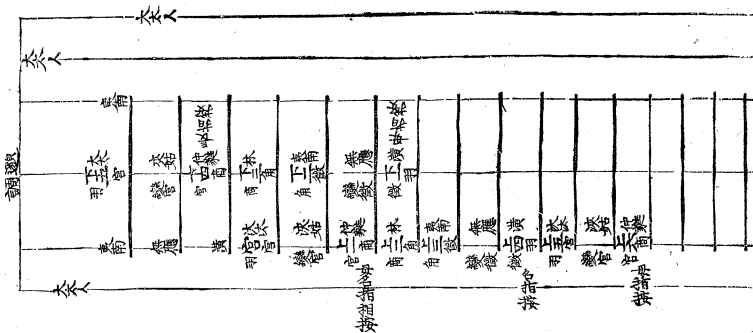
최자조는 太와 仲, 南과 潢은 4율정으로 두 괘의 차이가 나고, 仲과 林, 林과 南은 3율정으로 한 괘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汰를 기본음으로 하는 汰

32) 『樂學軌範』제7권.16b.

泚淋浦瀟의 5음음계 청태주궁계면조이다. 기본음인 汰를 유현5괘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음역은 하5의 태에서 상5의 泚까지 두 옥타브 정도이다. 최자조는 청태주궁계면조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 우조계면조 중 막조는 청대려궁/청태주궁계면조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현금의 우조계면조 중 막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 4) 현금의 우조계면조 막조

『악학궤범』에 전하는 현금 우조계면조 중 막조의 조현법산형은 <그림7>과 같다.



<그림7> 『악학궤범』 현금의 우조계면조 막조 산형33)

<그림7> 『악학궤범』에 전하는 현금 우조계면조 막조 조현법에 의하면 무현, 기괘청, 대현, 문현은 大/太和, 괘상청과 유현은 夷/南이다. 각 음은 개방현의 음이다. 왼손 모지, 장지의 탄법과 우조의 7음과 시용 평조의 5음, 상하지법, 汰/汰, 泚/姑, 泚/泚, 泚/泚, 泚/泚, 泚/泚, 泚/泚 등의 음명을 사용하고 있다. 한 괘마다 한 음 또는 두 음이 나게 되어 있다. 즉 汰/汰, 泚/姑, 泚/泚, 泚/泚, 泚/泚, 泚/泚, 泚/泚

33) 『樂學軌範』 제7권.16a.

漙, 漙의 청대려궁/청태주궁 계면조이다. 우조의 우, 변궁, 궁, 상, 각, 변치, 치의 7음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우, 궁, 상, 각, 치의 5음만이 상하지 법이나 시용 궁, 상, 각, 치, 우의 5음과 배합되어 있다. 궁(유현4괘)와 상5(유현11괘)는 汰/汰이고, 하5(대현1괘)는 大/太이고, 모두 시용 평조의 궁이고 우조의 우이다. 상1(유현6괘)와 하4(대현3괘)는 仲/𡵓이고, 상6(漙/漙)은 모두 시용 상이고 우조의 궁이다. 상2(유현7괘)과 하3(대현 4괘)은 林이고, 모두 시용 각이고 우조의 상이다. 상3(유현8괘), 하2(대현 5괘)는 夷/南이고, 모두 시용 치이고 우조의 각이다. 상4(유현10괘)와 하1(대현3괘)은 漙이고, 모두 시용 우이고 우조의 치이다.

위와 같이 현금 우조계면조 막조에서 청대려궁계면조의 구성음은 汰, 𡵓, 漙, 漙이 되고, 청태주궁계면조의 구성음은 汰, 漙, 淋, 漙, 漙의 5음이 된다. 그런데 우조계면조 막조 조현법에서는 청태주궁계면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청대려궁계면조의 구성음인 漙과 漙이 없고 漙도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청대려궁계면조는 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조계면조 막조의 구성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汰/汰를 유현4괘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5의 伏/伏에서 상6의 漙/漙까지 두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현금의 최자조와 우조계면조의 막조 개방현의 조현을 비교하여 <표7>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7> 『악학계법』 현금의 최자조와 우조계면조의 막조 개방현의 조현법 비교

	문현	유현	대현	기괘청	괘하청	무현
최자조	太	林	黃	林	林	太
우조계면조 막조	大/太	夷/南	大/太	夷/南	大/太	大/太

위 <표7>과 같이 개방현의 조현법에서 최자조는 문현, 무현이 태이고, 양청, 유현이 林이고, 대현이 黃인데 비해 우조계면조 막조는 무현, 기괘청, 대

현, 문현이 大/太이고, 패상청과 유현이 夷/南이다. 음역은 최자조에서는 하5에서 상5까지이고, 우조계면조의 막조에서는 하5(伏/伏)에서 상6(泮/泮)에서 상6까지로 두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악학궤범』 최자조와 우조계면조 막조의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을 비교하면 <표8>과 같다.

<표8> 『악학궤범』 최자조와 우조계면조 막조의 대현과 유현의 조현법 비교

	악조	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대현	최자조	상하		下五		下四	下三			下一	宮		上一			
		울명	黃	太		仲	林	南		潢	汰		仲			
		울명											泮			<필자 수정>
	우조계면조 막조	상하	下五		下四	下三	下二		下一							
		시용	宮		商	角	徵		羽							
		우조	羽	變宮	宮	商	角	變徵	徵							
유현	최자조	상하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울명	林	南		潢	汰		仲	林	南		潢	汰		
		울명							泮	淋	漚		潢	汰		<필자 수정>
	우조계면조 막조	상하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시용				宮		商	角	徵		羽				
		우조				羽	變宮	宮	商	角	變徵	徵				
		울명	夷南	無應	潢	汰汰	泮泮	仲泮	林	夷南	無應	潢	汰汰	泮泮	仲泮	
		울명						泮泮	淋	泮泮	無應	潢	汰汰	泮泮	泮泮	<필자 수정>
	우조계면조 막조	상하						上一	上二	上三		上四				
		울명						泮泮	淋	泮泮		潢	汰汰	泮泮	泮泮	<필자 수정>

<표8>과 같이 『악학궤범』 최자조와 우조계면조 막조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자조에서는 汰를 기본음으로 하는 청태주궁계면조로서 汰泮淋漚潢의 5음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음인 汰를 유현5패에 맞추어 조율하는데 비해 우조계면조의 막조에서는 청대려궁/청태주궁계면조로서 汰/汰, 泮/泮, 淋, 泮/泮, 潢으로 이루어져 있고, 汰/汰를 유현4패에 맞추어 조율한다. 최자조는 우

조계면조 막조보다 한 패를 올려 한음씩 낮게 조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향비파의 하림조와 청풍체

『악학궤범』의 향비파악조에는 낙시조와 우조가 있고, 평조와 계면조, 청풍체가 있다. 평조는 5조 중 치조이고, 계면조는 5조 중 우조이다. 치조는 치, 우, 궁, 상, 각의 5음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우조는 우, 궁, 상, 각, 치의 5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낙시조에는 1지의 고선궁, 2지의 중려궁, 3지의 임종궁, 횡지의 남려궁이 있고, 우조는 횡지의 남려궁, 우조의 응종궁, 팔조의 청황중궁, 막조의 청태주궁이 있다.

향비파의 청풍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향비파의 청풍체

향비파의 하림조는 청풍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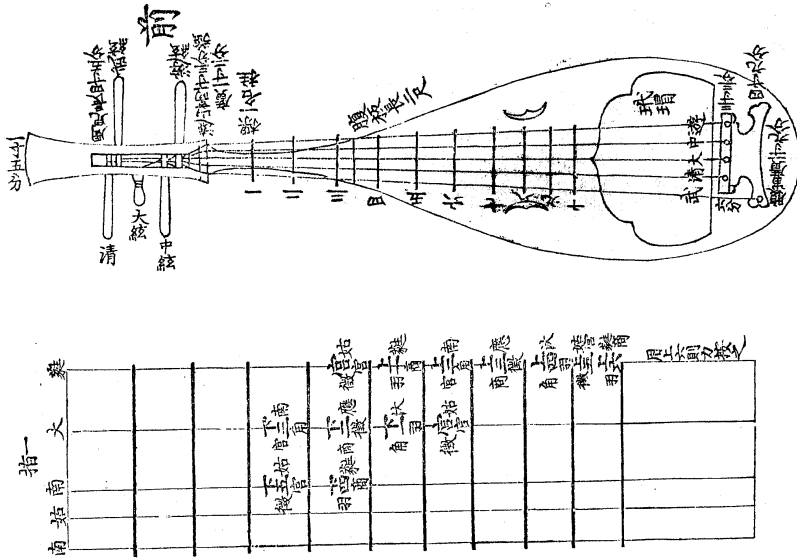
“청풍체는 하림조 속칭 잉이라고 하고 고선궁이다.”<sup>34)</sup>

향비파의 하림조는 청풍체라는 명칭으로 병용하고 있고 잉이라고 하는데 잉은 가야금과 현금의 잉과 같다. 고선이 기본음이 되는 고선궁이다.

『악학궤범』 향비파와 청풍체 산형은 <그림8>과 같다.

---

34) 『樂學軌範』 제7권.22b, “淸風體亦名河臨調惑稱剩卽姑洗宮也”



<그림8> 『악학궤범』 향비파와 청풍체 산형<sup>35)</sup>

향비파의 조현법은 대현과 무현은 남려, 중현은 대려, 청현은 고선이고, 유현은 유빈이다.<sup>36)</sup>

<그림8>과 같이 청풍체에는 1지라고 한다. 1지는 고선궁평조이다. 청풍체는 향비파의 5줄의 현명에서 제1현은 무현, 제2현은 청현, 제3현은 대현, 제4현은 중현, 제5현은 유현이다. 개방현의 조현법에서 대현과 무현은 남려, 중현은 대려, 청현은 고선이고, 유현은 유빈이다. 향비파의 대현과 중현, 유현은 껍의 위치에 따라 음의 높이가 달라지고 악조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현과 중현, 유현의 향비파 청풍체 조현법산형에 의하면 궁(유현5괘, 중현7괘)와 하5(대현 4괘)와 상5(유현10괘)는姑이고, 치조의 치

35) 『樂學軌範』 제7권 21a, 22b.

36) 『樂學軌範』 제7권 22b, “清風體調絃法 大絃武絃爲南呂 中絃爲大呂 清絃爲姑洗 遊絃爲蕤賓”

이며, 모두 시용 궁이다. 상1(유현6괘), 하4(대현 5괘), 상6(유현10괘)은 𪛗이고, 치조의 우이며, 모두 시용 상이다. 상2(유현7괘), 하3(중현 4괘)은 南이고, 치조의 궁이며, 모두 시용 각이다. 상3(유현8괘), 하2(중현 5괘)는 應이고, 치조의 상이며, 모두 시용 치이다. 상4(유현9괘), 하1(중현 6괘)은 汰이고, 치조의 각이며, 모두 시용 우이다.

그리고 유현10괘에서 상5의 姑와 상6의 𪛗의 두 음이 나오는데 상6을 사용하려면 유현10괘를 역안한다<sup>37)</sup>고 하였다. 즉 상6의 𪛗는 유현10괘를 눌러서 姑보다 3울 높게 나오는 음이다. 그리고 3울정이나 4울정이 똑같이 한 괘의 차이로 조율되어 있어 음의 높이에 따라 눌러서 내는 역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비파 청풍체 조현법에서 시용 궁조의 궁, 상, 각, 치, 우와 상하지법,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그리고 姑𪛗南應汰 5음음계의 고선궁평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5(𪛗)에서 상6(𪛗)까지 두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기본음인 姑를 유현5괘와 중현7괘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학궤범』 향비파 청풍체의 대현, 중현, 유현 조현법을 나타내면 <표9>와 같다.

<표9> 『악학궤범』 향비파 청풍체의 대현, 중현, 유현 조현법 비교

	괘	4	5	6	7	8	9	10	비고
대현	상하	下五	下四						
	시용	宮	商						
	치조	徵	羽						
	울명	姑	𪛗						
	울명	𪛗	𪛗						<필자수정>
중현	상하	下三	下二	下一	宮				
	시용	角	徵	羽	宮				
	치조	宮	商	角	徵				
	울명	南	應	汰	姑				

37) 『樂學軌範』 제7권 21a, 22b, “用上六則力按之”



	율명	備	億	大					<필자수정>
유현	상하		宮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上六	
	시용		宮	商	角	徵	羽	宮/商	
	치조		徵	羽	宮	商	角	徵/羽	
	율명		姑	蕤	南	應	汰	姑/蕤	
	율명							澌/濮	<필자수정>

향비파의 청풍체는 고선궁평조로 이루어져 있고, 낙시조 평조의 1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비파의 낙시조 평조의 1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향비파의 낙시조 평조 1지

낙시조 1지는 고선궁이다. 조현법은 대현과 청현이 고선, 중현과 무현이 남려, 유현이 청대려이다. 각 현들은 모두 개방현의 음이다.<sup>38)</sup>

향비파의 낙시조 평조1지는 고선을 기본음으로 하는 고선궁평조이다. 개방현의 조현법은 대현과 청현이 고선, 중현과 무현이 남려, 유현이 청대려이다.

『악학궤범』에 향비파의 낙시조 평조1지에 대한 조현법산형이 없어서 필자가 『악학궤범』 향비파의 3지 조현법산형을 참고로 하여 조현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낙시조 평조1지에서 궁<유현7괘, 중현9괘>와 하5<대현 6괘>는 시용 궁이고, 치조의 치이며, 모두姑이다. 상1<유현8괘>과 하4<중현 5괘>는 시용 상이고, 치조의 우이며, 모두 蕤이다. 상2<유현9괘>와 하3<중현 6괘>은 시용 각이고, 치조의 궁이며, 모두 南이다. 상3<유현10괘>과 하2<유현5괘, 중현7괘>는 시용 치이고, 치조의 상이며, 모두 應이다. 하1<유현6괘, 중현 6괘>은 시용 우이고, 치조의 각이며, 모두 汰이다.

향비파 낙시조 평조 1지의 조현법에서 상하지법, 시용 궁, 상, 각, 치, 우

38) 『樂學軌範』 제7권 21b, “樂時調 平調...一指姑洗宮也 調絃法大絃清絃爲姑洗 中絃武絃爲南呂 遊絃爲清大呂並散聲”

와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그리고 姑蕤南應汰 5음음계의 고선궁평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5(𪛗)에서 상3(應)까지 한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기본음인 姑를 유현7괘와 중현 9괘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향비파 낙시조 평조 1지의 대현, 중현, 유현 조현법을 <표10>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악학궤범』 향비파 낙시조 평조 1지의 대현, 중현, 유현 조현법 비교

	괘	4	5	6	7	8	9	10	비고
대 현	상하			下五					
	시용			宮					
	치조			徵					
	울명			姑					
	울명			𪛗					<필자수정>
중 현	상하		下四	下三	下二		宮		
	시용		商	角	徵		宮		
	치조		羽	宮	商		徵		
	울명		林	南	應		姑		
	울명		𪛗	備	德				<필자수정>
유 현	상하		下二	下一	宮	上一	上二	上三	
	시용		徵	羽	宮	商	角	徵	
	치조		商	角	徵	羽	宮	商	
	울명		應	大	姑	蕤	林	南	
	울명		德						<필자수정>

이상 향비파의 청풍체와 낙시조평조 1지의 조현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향비파의 청풍체는 낙시조 평조 1지와 같이 시용 궁, 상, 각, 치, 우와 상하지법,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그리고 姑蕤南應汰의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청풍체는 하5(𪛗)~상6(濼)의 음역으로 낙시조 평조 1지의 하5(𪛗)~상3(應)의 음역보다 고음들을 더 첨가하여 두 옥타브 반 정도의 넓은

음역을 사용한다. 청풍체는 유현, 중현, 대현에서 낙시조 평조 1지보다 두  
 궤 낮게 조율하여 상4와 상5 등의 고음을 낼 수 있고 유현10궤를 역안하여  
 상6(濫)까지 고음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본음인 姑를 청풍체에서는 유현7  
 궤와 중현 9궤에 맞추고,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유현5궤와 중현 7궤에 맞  
 추어 조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향비파 청풍체 1지와 낙시조 평조1지의 개방현 조현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악학궤범』 향비파의 청풍체와 낙시조 평조 1지의 개방현 조현법 비교

	무현	청현	대현	중현	유현
청풍체	南	姑	南	大	蕤
낙시조평조1지	南	姑	姑	南	汰

위와 같이 향비파 개방현의 조현법에서 청풍체 1지와 낙시조 평조 1지는  
 무현은 南, 청현은 姑로 조율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대현은 청풍체  
 1지에서는 南으로,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姑로 조율하고, 중현은 청풍체 1  
 지에서는 大로,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南으로 조율하고, 유현에서는 청풍체  
 1지에서는 蕤로, 낙시조 평조 1지에서는 汰로 조율하는 등 차이가 있다.

## V. 『성호사설』

### 1.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

속악에는 낙시조, 하림조, 최자조, 탁목조 등 악조가 있다. 신라사에 상고하  
 니, 신라 진흥왕이 가야국사람인 우륵을 하림궁에서 만나보고 하림조와 눈죽  
 조의 두 악조를 연주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악조의 시조였다고 하  
 였으니 이 악조명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듯하다. 지금 『악학궤범』에는 이 악조

명(하림조)을 청풍체라고 했으며 탁목조도 역시 하림조라고 했으니 이 청풍체와 탁목조는 모두 우륵이 남긴 유파이다.<sup>39)</sup>

위와 같이 『성호사설』에 의하면 낙시조, 하림조, 최자조, 탁목조 등은 속악의 악조명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 앞에서 우륵이 하림궁에서 작곡연주한 하림조와 눈죽조의 두 악조가 우리나라 악조의 시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악학궤범』의 청풍체와 탁목조 등도 하림조라고 하여 우륵이 남긴 유파라고 하였는데 탁목조가 하림조와 같다고 하는 내용은 『악학궤범』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 VI. 결론

1. 『삼국사기』에 전하는 하림조는 우륵과 이문이 신라 진흥왕앞에서 눈죽조와 함께 낭성의 하림궁에서 연주한 가야금악조로서 우리나라음악사에서 최초로 악조명을 사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림궁에서 연주한 하림조는 지금의 충북 청주시 낭성면지역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세종실록』에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금의 하림조와 눈죽조에 대한 보법과 탄법이 남아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지 않았다. 현금의 최자, 탁목, 우식, 다수희, 청평, 거사연은 속악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악학궤범』에 이르러 하림조는 가야금과 현금, 향비파 등 향악기의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라는 악조의 명칭으로 확대되어 기보법과 탄법을 포함

---

39) 이익,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 만물문 속악편, 1977, 50쪽, “俗樂有樂時調 河臨喈子 啄木 等 今調 按 新羅史 王見伽倻人于勒於河臨宮 奏河臨嫩竹二調 此東方樂調之始意者 此名流傳至今也 今 樂範一名清風體也 啄木亦稱河臨 卽清風啄木皆于勒之餘流”

한 조현법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1) 가야금과 향비파, 현금의 청풍체는 하림조와 같다는 하는데 충북 제천시 청풍면과 하림의 충북 낭성면의 지역적인 음악적 특징이 같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2) 청풍체에는 1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낙시조 평조 1지와 비교한 결과 1지인 고선을 기본음으로 하는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향악의 7지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지의 기본음이 협종과 고선인 것을 감안하면 하림조가 가장 기본이 되는 향악의 악조임을 증명하고 있다.
- 3) 가야금과 현금, 향비파의 청풍체의 설명에서 잉이라고 하였는데 잉은 『악학궤범』의 하림조와 청풍체 1지인 고선궁과 관련되어 있고, 『방산한씨금보』양금조현법에서 泔/泔의 구음으로 사용되어 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가야금의 하림조는 청풍체로 상하지법과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시용 궁, 상, 각, 치, 우와 그리고 姑襲南應汰 등의 5음음계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음 姑를 제7현에 조율하고 하2에서 상5까지 세 옥타브의 음역을 가지고 있다. 낙시조평조 1지보다 한 음씩 올려 높게 조율하여 최저음을 빼고 상5의 泔와 제12현을 역안하여 상6의 泔까지 고음을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현금의 하림조는 청풍체, 최자조, 우식조 등의 다양한 악조로 분화되었다. 청풍체는 상하지법과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그리고 시용 궁, 상, 각, 치, 우와 그리고 姑襲南應汰 등의 5음음계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음인 姑를 유현5괘에 맞추어 조율하고, 음역은 하5~상6으로 낙시조평조1지의 음역에 하5와 하4의 저음을 추가하였다. 최자조는 상하지법과 우조의 우, 궁, 상, 각, 치와 시용 궁, 상, 각, 치, 우, 그리고 汰泔淋瀟瀟의 5음음계 청태주궁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있고, 기본음인 汰를 유현5괘에 맞추어 조율하고, 하5~상5

의 음역으로 우조계면조의 막조보다 한 패 높게 조율하여 저음을 추가하였다. 최자조는 우식조와 같다고 하였는데 우식조는 슬픈 계면조로 만들어진 향악곡인 우식곡의 청태주궁계면조로 추정된다.

- 6) 향비파의 청풍체는 상하지법과 치조의 치, 우, 궁, 상, 각, 시용 궁, 상, 각, 치, 우와 그리고 姑蕤南應汰 등의 5음음계 고선궁평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5~상6의 음역으로 기본음인 姑를 유현7괘와 중현9괘에 조율하고, 낙시조 평조 1지보다 두 패 낮게 조율하여 유현10괘의 상5와 유현10괘를 역안하여 상6까지 고음을 추가하였다.

4. 『성호사설』에 의하면 하림조와 눈죽조의 두 악조가 우리나라 악조의 시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풍체와 탁목조 등도 하림조라고 하여 우륵이 남긴 풍류음악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하림조는 『삼국사기』, 『세종실록』, 『성호사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악조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악학궤범』에 이르러 하림조는 가야금 뿐만 아니라 현금, 향비파 등의 악조에도 영향을 주어 청풍체, 최자조와 우식조의 다양한 악조로 확대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림조는 조현법에서 고선궁평조와 청태주궁계면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청풍체와 낙시조평조1지, 최자조와 우조계면조 막조를 비교하면 고음역이나 저음역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음역을 넘나들면서 변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림조는 가야금, 현금, 향비파의 조현법에서 향악의 평조와 계면조의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5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芳山韓氏琴譜』

『三國史記』

『星湖僊說』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樂學軌範』

김형동, 「악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313 ~ 347쪽.

남상숙, 「악학궤범의 청풍체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291 ~ 312쪽.

송방송, 「향악 하림조의 음악사학적 고찰」, 『한국음악사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9, 379~415쪽.

양승경, 「거문고 향악조 청풍체의 잉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55집, 한국음악사학회, 2015, 117 ~ 141쪽.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450쪽.

정해임, 「가야금의 창조와 우륵의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6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73-156쪽.

<http://sillok.history.go.kr>

## A Study on Harimjo mode

Chung, Hae-im

According to 『Samguksagi』, Harimjo performed by Ureuk and Imun in front of Jinheung King of Shilla in Harim palace of Nangseung. Harimjo is the first Gayageum mode.

Therefore Harimjo performed in Harim palace of Nangseung, which represented musical character of Nangseung region, that is now Cheongju city of Chungbuk.

Harimjo of Gayageum, Hyeongeum and Hyangbipa in 『Akhak gwebeom』 composed by Goseongung Pyeongjo. And Harimjo of Hyeongeum appears also in Chojajo and Usikjo, that is consist of Taiju Gyeomyeonjo.

So Harimjo absorbed to Cheongpungche by Goseongung Pyeongjo of Gayageum, Hyeongeum and Hyangbipa, also Chojajo, Usikjo by Taiju Gyeomyeonjo of Hyeongeum. Cheongpungche presents musical character in Cheongpungmyeon, Chungbuk.

Harimjo is the first musical mode that performed by Ureuk in Harim palace.

Here Cheongpungche of Gayageum, Hyeongeum, Hyangbipa and Chojajo, Usikjo in 『Akhakgwebeom』 consists of basic frame by Pyeongjo, Gyeomyeonjo of Hyangak.

**key words**

Harimjo, Cheongpungche, Ushikjo, Chojajo, Ureuk